우암학원 창학67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ood Smile NAMBU
남부대학교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507호 1판 (음력 5월 4일)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건강한 라미란은
NK뷰키트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도
문의 : 080-340-2222 www.nkvue.com

이낙연 총리 인준 대치

野 "위장전입 등 인사원칙 대통령 직접 해명을"

與 "결정적 하자 없다…초당적 상생 협력해야"

여야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특정 안건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여야는 지난 24~25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낸 후 총리 자격 문제를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적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 위장전입 시인 등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 배제기준에 해당한다며 부적격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애초 적격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까지 터져나오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해명 기자회견이 나온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이처럼 여야 입장 차이가 확연해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특위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또 오는 29일 본회의는 물론 여야가 애초 표결 시한으로 잡은 31일에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각 인선에 속도조절까지 하면서도 야권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국회 통과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차관 인사를 발표할 경우 야당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오늘 인사발표가 있다는 얘기는 없다"고 전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야권에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는 동시에 '대통령을 흔들지 말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위장전입 공세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점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인사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한편, 무조건적 인준 반대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은 여야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정중히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등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을 어기는 인사를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대통령 본인의 국민을 향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반드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라며 "적어도 향후에는 정권 스스로 약속한 '5대 비리는 원천 배제하겠다'는 점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장 전입) 문제를 매듭 정리하지 않은 채 총리 인준 문제를 넘길 경우 향후 모든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더 이상 위장전입 문제는 거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고위공직의 도덕적 기준은 크게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여당 원내대표 뒤에 숨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그 매듭을 풀어주길 국민은 기대한다"며 "앞으로의 인선에도 수정된 인사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월호 참사 또다른 피해자
동거차도 주민의 눈물 ▶6면

5·18 영화가 달려온다
'택시 드라이버' 7월 개봉
'임을 위한 행진곡' 촬영 ▶7면

최원준 '끝내기 만루홈런'
"가슴이 벅차 올랐다" ▶20면

나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15% 목표

정부 권고 기준 35%의 절반도 안된다

지난해에는 11.4% 그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올해 신입사원의 15%가량을 지역 인재로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지역의 기대에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28일 이전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사무·송배전·통신·토목·건축 등 직종에서 1200명을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지난해의 1412명 보다 다소 줄었다. 한전은 광주·전남지역 인재를 전체의 15% 가량을 채용하는 '목표제'와 권역별 지역전문사원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215명을 채용할 계획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채용목표제에 따라 10%를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또 나머지 공기업들도 수십 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 3년 간 지역인재를 고용한 비율은 고작 12.3%에 불과했으며, 지난해는 11.4%에 그쳤다.

올해 채용 비율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에는 턱없이 미흡한 수치다. 다만 지난달 지역대학과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의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시키는 등 점차 개선될 여지는 남아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5·18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패널 토론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UN에 울려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5·18 '세계 민주주의 모델' 재조명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첫 5·18 국제학술대회 열려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북한군 개입설 사실 아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37년만에 국제화 확산 토대를 만들었다.

유엔(UN)본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고, 첫 학술세미나가 열리는 등 80년 5·18민주화운동이 전 세계에 민주 모델로 재조명을 받았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광주 다이어리 : 민주주의와 자유의 집단 기억'이란 주제로 5·18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희생자들의 추모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 모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며 광주의 시대적 역할을 되새기기도 했다. 또한, 참혹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5·18 민주화운동 37년 만에 유엔 본부에서 열린 첫 기념행사여서 시작 전 부터 주목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5·18을 직접 경험한 광주시민들과 5·18을 취재하고 연구한 기자와 학자들, 외교관들 뿐만 아니라 한인회 등 교포를 비롯한 현지 언론인, 고등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패널로 참석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유엔에서 5·18 심포지엄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다"면서 "시간이 많이 지난 일임에도 그날의 생생한 기억들을 함께 나누며 당시 미국이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자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1980년 당시 5·18을 직접 취재했던 테리 앤더슨 전 AP통신 특파원은 "택시를 타고 광주에 들어가 수많은 시신들을 목격했다"면서 "그럼에도 시민들이 절제된 행동 속에서 연대하면서 대처하는 모습에 굉장히 놀라웠다"고 당시의 기억을 회상했다.

미국에서 열린 행사인 만큼 5·18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됐다. 국제 정치학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학 석좌교수는 "기밀이 해제된 CIA 문건을 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을 통해 5·18과 북한이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5·18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오히려 80년대 반미(反美) 감정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전일빌딩의 헬기사격에 의한 탄흔 발견과 함께 팀 셔록 기자가 입수해 분석한 체로키 파일 등을 통해 미국이 전두환 신군부의 거짓 정부에 의해 한국 상황을 방치했다는 근거를 찾아냈다"면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함께 당시 미국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한 미 정부의 비공개 자료들을 추가 요청하고 미국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 뉴욕 한인회(회장 김민선)는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박물관 내에 일본 위안부 문제를 공유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5·18 당시 한인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물도 전시할 예정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www.nssk.co.kr
농성 SK VIEW Central
생활, 교육, 교통, 문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중심입지를 누리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
행복의 중심은,
농성 SK VIEW central로부터-
단지와 연계된 벚꽃공원 에코 프리미엄
SK 건설의 브랜드 프리미엄
광주 중심, 서구에 펼쳐지는 중심 프리미엄
6월초 OPEN 예정
| 주택홍보관 및 현장 |
유스퀘어
신세계 백화점
농성 SK VIEW Central
구)상록회관
농성역
농성광장
광주상공 회의소
서구청
서구 상무대로 1147(농성동 260) 1층
총 842세대 중 일반분양 113세대 74㎡/84㎡
062.529.1000